

# 퇴계학과 학문방법에 대한 일고찰

-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과 「靜存齋箴考證」을 중심으로 -

이군선\*

## || 차례 ||

1. 서론
2. 매헌 금보
3. 「도산기고증」 분석
4. 「정존재잡고증」 분석
5. 결론

### 【국문초록】

조선 중기 퇴계의 문하에는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에 잠심하였다. 한 학자에 게서 이렇게 많은 학자와 문인이 배출되어 학단을 형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이 학맥은 꾸준히 전개되어 조선 학술사에 유래가 없는 풍성한 업적을 남겼다. 퇴계의 학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과 「靜存齋箴考證」은 그 단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스승인 퇴계의 글에 주석 작업을 한 것이다. 우리는 고전을 연구하며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 치중해 왔다. 문집에 대한 주석 작업을 소홀히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퇴계 문하의 학문 방법은 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퇴계에서 시작하여 퇴계 일문의 공부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와 같이 스승의 글에 주석을 단 자료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자신의 시문에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처럼 스승의 글에 대하여 주석을 단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퇴계와 같이 공부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원전을 정확하게

---

\*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다. 이러한 원전에 대한 꼼꼼한 주석 작업이 퇴계의 문인들이 퇴계의 학맥을 이어나가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이러한 공부방법이 전통으로 굳어져 학문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이루어졌기에 퇴계의 학맥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퇴계 일문의 학문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금묘의 퇴계에 대한 존모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주제어** 退溪學脈, 學問方法, 스승에 대한 尊慕의 情, 註釋, 原文의 正確한 理解, 學問의 傳統, 學脈 持續의 原動力, 學習 經驗

## 1. 서론

조선 중기 퇴계의 문하에는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에 잠심하였다. 한 학자에게서 이렇게 많은 학자와 문인이 배출되어 학단을 형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이 학맥은 꾸준히 전개되어 조선 학술사에 유래가 없는 풍성한 업적을 남겼다. 퇴계의 학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퇴계라는 걸출한 학자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퇴계 문인들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던 중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과 「靜存齋箴考證」을 접하게 되었다.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스승인 퇴계의 글에 주석 작업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經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퇴계는 주자의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朱子書節要』를 編次하고 난 뒤에, 또 일일이 書札에서 疑心나는 곳이나 難解한 구절을 풀이하였고 이것이 정리되어 『朱子書節要記疑』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節要』의 書信에 대해 한편 한편마다 字句가 풀이되어 있어 퇴계가 『節要』 書信에 관해 얼마나 精緻하게 考究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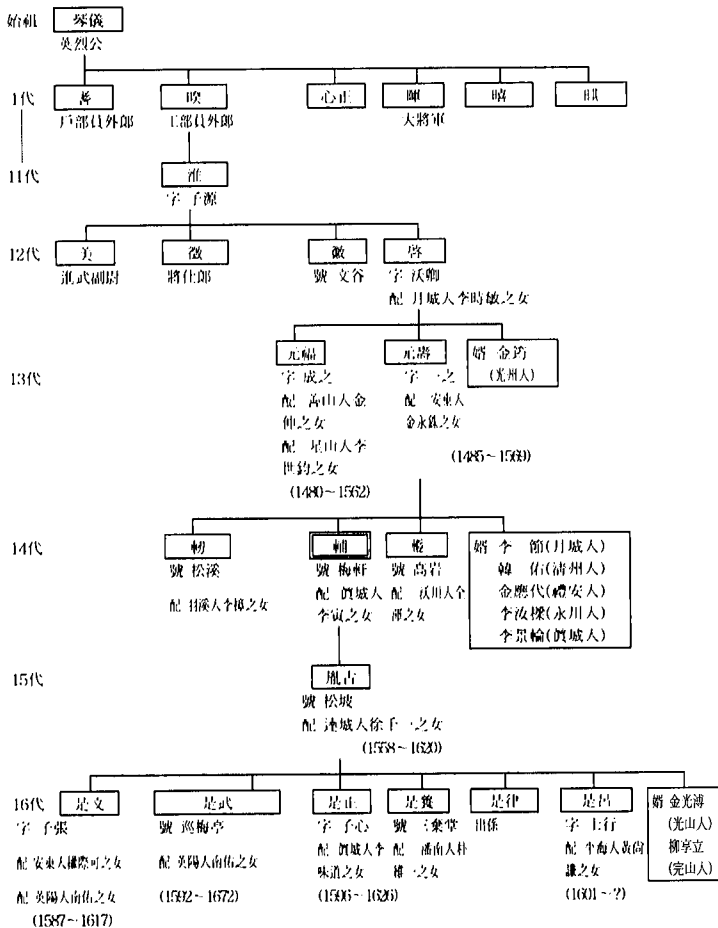
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퇴계가 주자의 글을 그만큼 존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퇴계의 문인이 스승인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붙였다는 것은 퇴계의 문장을 그만큼 높이 보았기 때문이며 정치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퇴계의 문인들은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달 수 있었을까? 이는 퇴계와 같이 공부했던 경험의 소산으로 보인다. 『朱子書節要記疑』는 문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경험이 퇴계의 문인들에게 이어져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달게 된 것이다. 즉, 퇴계의 문인들이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단 것은 퇴계의 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며 또한 퇴계의 학문 방법의 하나로 퇴계와 함께 공부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이 퇴계의 문인들이 퇴계의 학맥을 이어나가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만 원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더 깊은 해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공부방법이 전통으로 굳어져 학문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이루어졌기에 퇴계의 학맥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퇴계학문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 철저한 원문독해(주석 작업)를 매헌 금보가 남긴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매헌 금보

매헌 금보는 중종 16년(1521) 奉化縣 남쪽의 槐村里에서 司禦寺僉正을 지냈고 僉知中樞府事에 追贈된 琴元壽와 안동 김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琴씨가 봉화에 적을 두게 된 것은 고려 때 翰林學士였고 門下侍郎平章事로 치사하여 英烈이란 시호를 받은 琴儀부터이다. 금보의 고조는

備巡衛領中郎將을 지낸 用和이고 증조는 淮이며 조부는 軍威縣監을 지낸 啓이다.1) 금보가 18세 때 『중용』을 읽고 體圖를 만들었는데 형인 송계공이 “아무개는 한결같이 전을 연구하여 性情과 中和의 구별을 알 수 있었으니 그 견식의 밝음은 나보다 훨씬 낫다.(讀中庸 作體圖. 松溪公曰 某也一

1) 梅軒 琴輔(郎將公派 - 出典 : 奉化琴氏世譜)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이 가계도는 인물팀의 이지락 씨가 작성하였다.



究傳 能知性情中和之別 其見識之明過我遠矣)”고 하였다. 20세 때 퇴계의 백형 李潛의 아들 寅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21세 때 재종형인 南溪 琴軸이 금보의 문사가 풍부하고 넓은 것을 사랑하여 「조진론」을 짓게 하고 비평해 주며 “아무개는 나이가 약관인데도 대의가 이미 밝으니 실로 우리 집안의 원대한 그릇이다. (著趙普論. 再從兄南溪公軸愛先生文詞瞻博 使之著此論而批考之 稱歎不已 曰某年弱冠 大義已明 實吾家遠大之器也)”라고 칭찬해 마지않았다. 23세 때 온계에 거처하면서 퇴계에게 나아가 수업하였다. 퇴계는 그의 재주가 뛰어난 것을 보고 子侄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28세 봄에 퇴계가 단양군수로 있어 찾아뵙고 『중용』과 『대학』을 질문하며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강학하는 여가에 귀담과 도담의 승경을 유람하고 「산수록」을 남겼지만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31세 가을에 태학에 들어가 매양 淸直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時論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니 일시의 여러 명류들이 모두 추종하였다. 32세 가을에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뵙고 33세 가을에 서울에 가서 월천 조목과 함께 반궁에서 생활하면서 경전을 공부하며 강론하고 토의하였다. 35세 되던 2월 반궁에서 공부한 지 5년에 당화를 입어 時象이 크게 변하자 퇴계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명리에 골몰하여 날마다 더럽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위를 향하여 사람답게 되는 것에 뜻을 두어 공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先生之遊泮宮凡五年 時經黨 時象大 遂意歸鄉 自是不復應舉 曰與其汨沒名利 日趨汚下 曷若向上志業 做人樣子 僉正公喜曰從汝所好可也)”라고 부모님께 고하고는 이로부터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36세 여름에 寒栖菴의 남쪽 시냇가에 집을 지으니 퇴계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주었다. “해와 별같이 밝은 교훈 전현의 글에 실려 있으니 이를 엄한 스승을 대하 듯해도 절로 여유가 있네. 괴벽한 기호(은거) 진실로 기이한 일인데 그대가 고생하며 이웃에 집을 지은 것을 탄복하네. (日星明訓載前書 對此嚴師自有餘 遂

臭海濱良異事 歎君辛苦築隣廬)”라고 하였다. 또 퇴계가 「경제잡도」를 써 주자 족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조석으로 장엄하게 외우며 “엄한 스승이 곧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매화를 집 앞에 심어 놓고 인하여 號를 삼았다. 이 해에 퇴계가 『주자서절요』를 편차하였는데 여러 문인들에게 명하여 繕寫하게 하여 『주자서절요』를 정서하였다. 37세에 평소에 퇴계에게 묻은 것을 가지고 『사서질의』를 저술하였다. 40세 4월 月川 趙穆·滄淸 金富儀와 함께 퇴계를 모시고 孤山을 유람하였으며, 『心經』·『近思錄』을 읽고 『心近講義』를 저술하였다. 겨울에 도산서당이 새로 축성되자 도산에 가서 머물렀다. 44세 봄에 용수사를 유람하였으며 4월에 동문들과 퇴계를 모시고 청량산을 유람하였다. 47세 봄에 역동서원 창건을 감독하고 창건록을 썼다. 48세 되던 2월 역동서원에 모여 祭儀 및 規約을 의논하여 정하였으며 6월에 「도산기고중」을 수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도산기」 한부를 정사하여 읽어보고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적출하여 本註와 함께 傳錄하였다. 그리고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소리 내어 읽어보고는 “친히 천연대와 농운정사의 사이에서 선생을 모시는 듯하다.”고 하였다. 11월에 모부인 김씨의 상을 당하고 이듬해 49세 정월에 부친 첨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50세 11월에는 퇴계가 병을 앓자 계당에 가서 문후를 드렸으며, 12월 퇴계가 돌아가시자 심상 삼년을 치렀다. 51세 2월에 귀성에 출타하였는데 집에 불이 나서 서실에 소장한 퇴계의 친필 잠명 및 간찰과 그가 차록한 문자들이 모두 불에 탔고 「경제잡도」와 「사서질의」만 겨우 화마를 면하였다. 금보는 “나의 필적은 애석할 것이 없다면 선사의 친필은 한번 잃으면 어디에서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애석해하였다. 6월에 동문들과 역동서원에 모여 퇴계의 글을 稟集하였다. 64세 정월 도산과 역동 두 묘사를 배알하고 2월 정사에서 병조리하다 3월 7일에 운명하여 9월 20일 禮安의 龍頭山 동쪽 기슭 大興堂 卯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집과의 거리가 10리

쫓 되었다.

금보는 글씨를 잘써 梅巖 李叔樑, 春塘 吳守胤과 三筆이라고 일컬어졌다. 퇴계는 이 셋을 두고 “모두 필법이 아름다운데 그중에서도 금보의 필적이 가장 좋다. 서예는 비록 하찮은 기예이지만 이 사람에게 邪曲한 뜻이 있음을 조금도 볼 수 없다.”라고 하고 퇴계의 선고인 찬성공의 비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퇴계가 임종할 때에 묘비를 금보에게 쓰게 하였다. 또한 『사례정변』·『사례기문』·『가선회편』 등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어느 해에 완성되었는지 자세하지 않다고 한다.<sup>2)</sup>

금보의 문집인 『매헌선생문집』은 모두 4권 2책으로 이루어 졌다. 1책은 李象寧의 서문과 함께 「年譜」, 「目錄」과 1권에 29題 55首의 시, 그리고 賦 1 편이 실려 있고 2권에는 퇴계에게 『계몽』에 대해 물은 편지를 시작으로 7편의 편지와 제문, 갈문, 「趙晉論」, 「鄉校重修立約序」, 「陶山記考證」, 「靜存齋箴考證」, 「易東書院記事」 등이 실려 있다. 2책은 3권에 「四書質疑」가 실려 있고 부록으로 사우들이 기증한 시와 가장 행장 발문 및 금보의 후사인 琴胤古의 묘갈명이 실려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에 실린 시와 부는 스승 퇴계를 비롯하여 동문수학한 제현들과 수창한 시가 대부분이고 「陳情賦」는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인 1571년 51세 때의 심경을 읊은 것이다. 2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서간문과 잡저이다. 서간문의 처음에 나오는 「上退溪先生啓蒙問目」은 45세 때 올린 것으로 14조의 질문과 그에 대한 퇴계의 답변이 실려 있으며 先生改正이라 되어 있는 부분도 7조를 차지한다. 「四七辨書編次別紙」는 『퇴계집』을 편집할 당시 퇴계가 기대승에게 준 사칠면서에 대하여 이 일을 주관한 鶴峰 金成一과 몽재 이안도에게 편차 정리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적어 보낸 것이다. 잡

2) 이상 금보의 생애에 관해서는 「年譜」와 「家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 부분에는 「趙晉論」 등 5편의 글이 그의 유목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 「역동서원기사」가 있다. 이중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역동서원 기사」만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역동서원기사」는 역동서원이 세워진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퇴계는 예안에 살았던 선정으로 고려시대 성균관좌주를 지낸 우탁의 도의풍절이 후학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사당을 지어 백세를 두고 추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다가 1563년 광황이 예안현령으로 부임하면서 일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물자가 확보된 뒤인 1567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그 다음해인 1568년 2월에 완공을 보았다. 퇴계가 새로운 서원을 역동서원이라 명명하였다. 금보는 서원 창설의 과정에서 공사를 감독 확인하였고 토지를 회사하여 서원의 재정을 확충시켰으며 다른 동문들과 함께 서원의 제의와 규약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이 역동서원 창건에 관한 사실을 적은 것이 「역동서원기사」이다.<sup>3)</sup>

3권은 그의 저술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서질의」이다. 금보는 「사서질의」의 첫머리에 「가정 병진년(1556)년 나는 비로소 한서암의 곁에 살며 물뿌리고 비질하는 여가에 매양 강론하며 수업하고 어려운 것을 물었다. 간간이 제우들과 문변한 것을 인하여 함께 차록하고 『사서질의』라고 이름하니, 후에 보는 사람들이 참고하여 증정하길 바란다. (嘉靖丙辰夏輔始居于寒栖菴之側 灑掃之暇 每講受而問難 問因諸友間辨者 而并筭錄焉 名之爲四書質疑 後之覽者 庶有以參攷證正云爾)」라고 하여 이 글이 이루어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 「사서질의」는 사서의 본문과 주자주 및 소주들 가운데 문의가 분명하지 않거나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지구들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붙인 것인데, 『논어』에 관한 것이 81조, 『맹자』에 관한 것이 34조, 『대학』 15조, 『중용』 30조로 모두 162개조이다. 4권은 위

3) 안병걸, 「매헌선생문집해제」, (『퇴계학자료총서4』,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다.

이상으로 매헌 금보와 『매헌선생문집』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어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도산기고증」 분석

「陶山雜詠」은 1561년 퇴계가 61세 되던 해 11월에 지은 것으로 「陶山記」·「十八絕七言」·「二十六絕五言」·「四絕五言」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陶山記」는 「도산잡영」을 읊은 動機와 事實, 理論을 기록한 것이다. 「十八絕七言」은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한 堂舍·齋寮·巖臺·塘社·水石·峯壑의 전체적인 內外景을 읊은 것이고, 「二十六絕五言」은 도산서당 주변의 26개 景物을 총망라하여 읊은 것으로 7언시에서 미진했던 것을 서술하였는데 매질의 시제 밑에 4언4구의 韻詩를 달아놓았다. 「四絕五言」은 龔巖·汾川·賀淵·屏庵 등은 비록 天淵臺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있으나 각기 주인이 있으므로 山谷 黃庭堅의 ‘借景’으로 별도 처리한 것이다.<sup>4)</sup>

「도산기고증」은 총 34조로 이루어졌다. 「도산기」에 관련된 것이 4조, 7언절구 18수에 해당하는 것이 13조, 5언절구 26수에 해당하는 것이 14조, 오언절구 4수에 해당하는 것이 3조이다.

앞서 살펴본 “6월에 「도산기고증」을 수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도산기」 한 부를 정사하여 읽어보고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적출하여 本註와 함께 傳錄하였다. 그리고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소리 내어 읽어보고는 ‘친히 천연대와 농운정의 사이에서 선생을 모시는 듯하다.’고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4) 이가원, 「도산잡영과 산수지락」(『퇴계학보』46, 퇴계학연구원, 1985.)

보아 이 「도산기고증」은 48세 되던 6월에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퇴계를 존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의도가 「도산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산기」 전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보의 고증이 붙은 부분에 대하여 한정해서 「도산기고증」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記」의 내용과 관계된 네 개의 조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巖麓悄悄〔悄悄幽深蔥瓏之貌〕** 悄悄은 그윽하고 깊으며 선명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퇴계가 도산에 은거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형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바위 산기슭이 그윽하고 깊으며 선명하다.”라는 의미인데 금보는 ‘悄悄’이란 단어가 글자의 풀이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幽深蔥瓏之貌’라는 지구 풀이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樂山樂水 缺一不可〔初本作武夷所以爲天下絕勝者 以中有九曲水也〕** - 초본에는 “무이산이 천하의 절승이 된 까닭은 안에 구곡의 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을 넣어 원문과 맞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이가 “옛날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名山을 얻어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는데, 그대가 청량산에 살지 않고 여기에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기에 “청량산은 벼랑이 만 길이나 솟아 있고 위태롭게 깊은 골짜기에 임해 있어, 늙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곳이다. 또 樂山樂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 지금 洛川은 비록 청량산을 흘러 지나가지만 산 속에 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나도 진실로 청량산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그 곳을 뒤로하고 이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산과 물을 겸하고 또 늙고 병든 이에게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sup>5)</sup>

5) 「도산기」, 或曰 古之愛山者 必得名山以自託 予之不居清涼 而居此何也 曰 清涼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樂山樂水 缺一不可〔初本作武夷所以爲天

여기에서 ‘樂山樂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를 ‘무이산이 천하의 절승이 된 까닭은 안에 구곡의 물이 있기 때문인데’라고 해도 의미는 통한다. 그러나 금보가 「도산기고증」을 48세에 수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퇴계가 처음에는 ‘무이산이 천하의 절승이 된 까닭은 안에 구곡의 물이 있기 때문인데’라고 했다가 ‘樂山樂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보도 이에 이르러 이 문구로 바꾸어 쓴 다음 초본의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이다. 실제 국립중앙본 「도산기」에는 이 초본의 문구로 되어 있다.

卒歲之願[晦菴詠山詩 卒歲聊自娛] 晦菴의 詠山詩에 ‘해를 마치도록 애오라지 스스로 즐긴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이 주자의 「雲谷二十六詠」 중 15번째인 草廬의 ‘靑山逸蓬廬 白雲障幽戶 卒歲聊自娛 時人莫留顧’에서 근거한 것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이 구절은 위의 내용에 바로 이어 객이 다시 “옛날 사람들은 즐거움을 마음 속에서 얻고 바깥 사물을 빌리지 않는다. 대개 顏淵의 陋巷과 原憲의 甕牖에 무슨 산과 물이 있었던가. 그러므로 바깥 물건에 기다림이 있으면 그것은 다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리라.”라고 되묻자 이에 “曾點을 허여한다는 탄식이 왜 하필 沂水의 가에서 나왔으며 해를 마치겠다는 소원은 왜 하필 蘆峯 꼭대기에서 읊조렸겠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느니라.”<sup>6)</sup>라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다.

금보는 “해를 마치겠다는 소원이 왜 하필 노봉 꼭대기에서 읊조렸겠는가?”라는 말의 출전에 대해 이와 같이 제시하여 「도산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도산기고증」은 「도산기」를 읽어가며 잘 모르

下絶勝者 以中有九曲水也 今洛川雖過清凉 而山中不知有水焉 余固有清凉之願矣 然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6) 「도산기」 若信如吾子之言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 是必有其故矣

는 내용에 대하여 스승에게 물어 전고에 대한 주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畸人**〔**畸孤獨之意**〕 ‘畸’는 고독하다는 뜻이다.

「도산기」의 마지막에 畸人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언행이 상례에서 벗어난 사람’ 즉 ‘奇人’의 의미로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자 이 ‘畸’의 뜻을 ‘고독하다(孤獨之意).’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놓아 오해의 여지를 없앴다. 만약 이 주석이 없이 일반적인 의미로 풀었을 경우 퇴계가 자기 자신을 ‘奇人’이라 칭한 것이 되므로 내용상 잘 맞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석을 붙여 놓은 것이다.

다음은 7언절구 18수에 해당하는 13조의 내용이다.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7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6조이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先生本註라고 된 곳 6조가 있다. 선생본주는 필사본에는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문집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이 빠지게 되어 금보가 「도산기고증」에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선생본주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 내용 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선생본주는 도산서당에 관해서이다. 「도산잡영」에 나오는 ‘陶’자의 뜻에 대하여 퇴계의 주를 기록해 놓았다.

**陶山書堂**〔先生本註 陶義見記 今詩中或事或姓點綴陶字 乃事外嘆事以寓意耳〕 선생의 본주에 “陶’의 뜻은 예기에 보이는데 지금 시 중에 혹은 일로 혹은 성으로 써서 ‘陶’자를 점철한 것은 일 밖에서 일을 비추어 뜻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퇴계가 「도산서당」의 아래에 직접 주석한 것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여기에서 ‘陶’는 ‘질그릇을 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연명을 뜻하는 경우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을 퇴계는 “일 밖에서 일을 비추

어 뜻을 붙인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이고 금보 역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도산잡영」에 ‘陶’자가 쓰인 경우는 주 7), 8)과 같다. 「도산서당」에 관한 시만 ‘질그릇을 굽다’로 사용되었고,<sup>7)</sup> 나머지는 모두 도연명과 관련하여성의 의미로 쓰였다.<sup>8)</sup>

巖栖軒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栖意(先生本註曾子稱顏淵 有若無 實若虛 屏山字晦菴 以是祝之 晦菴詩 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 名軒以自勗) 선생의 본주에 “증자가 안연을 칭하여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실하면서도 빈 듯하다고 하였는데 병산이 회암에게 지를 지어주며 이로써 축원한 것이다. 회암시에 ‘스스로 믿는 것이 오래 되어도 능할 수 없어 은거하여 은미한 효과 있기를 바라네.’라고 하였기에 현에 이름하여 스스로 힘쓴다.”라고 되어 있다.

퇴계가 ‘巖栖軒’이라고 이름한 까닭을 밝히고 주자의 “옛날 병산옹이 나에게 한마디 가르침 보여 주셨네. 스스로 믿음에 오래할 수 없어 은거하여 은미한 효과 바라네.(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 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라는 시 구절을 아울러 기록하여 ‘암서헌’이라는 이름이 주자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 주가 없다면 ‘암서’의 뜻이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기에 금보 역시 스승인 퇴계의 주를 그대로 기록하여 놓았다.

玩樂齋(先生本註 朱子名堂室記 以持敬明義動靜循環之功爲合乎周子太極之論 足以翫樂而忘外慕 今以名齋而日加警) 선생의 본주에 “주자의 「명당실기」에 持敬과 明義와 동정 순환의 공부가 주자의 태극의 논리와 합치되어 족히 완상하고 즐기며 외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을 수 있

7)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도연명 몸소 농사지어도 기쁜 얼굴 지었네.(제1수 도산서당)

8)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제6수 節友社), 常愛陶公隴上雲 唯堪自悅未輸君 (제7수 隴雲精舍), 澗邊垂柳 濯濯風度 陶邵賞好 起我遐慕 (제4수 澗柳), 東隴上翠微 九日攜壺酒 卻勝陶淵明 菊花空滿手 (제9수 翠微)

어 지금 재에 이름하여 날마다 더욱 경계한다.”고 하였다.

‘완락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玩樂’은 주자가 敬·義의 학문요령을 위한 학문방법으로서 『중용』의 戒愼·恐懼로 시작하는 수도의 가르침을 持敬의 근본이라 하고, 『대학』의 格物·致知를 앞세운 明德의 순서를 明義의 단초로 확인하며 여기에다 주렴계의 太極論으로 천하의 이치를 알아서 하나로 꿰뚫어 가는 학문방법을 ‘즐거워하고 완상한다(玩而樂之)’는 말에서 끌어온 것이다. 이 글의 주가 없었다면 ‘완락’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을 완락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자의 「명당실기」에서 왔음을 밝혀놓음으로 인하여 재실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淨友塘〔先生本註 濂溪愛蓮說稱蓮美非一 而曾端伯獨呼爲淨友恐未盡也〕 선생의 본주에 “연계의 애련설에서 연의 아름다움을 일컬은 것이 하나가 아닌데 중단백이 유독 정우라고 불렀으니 미진한 듯하다.”라고 하였다.

淨友塘이란 이름을 濂溪의 愛蓮說을 염두에 두고 지었음을 언급하여 연꽃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였다. 曾端伯은 花中十友를 말하며 蘭을 芳友, 매화를 淸友, 臘梅를 奇友, 瑞香(월계수)을 殊友, 蓮을 淨友, 薝蔔(치자)를 禪友, 菊花를 佳友, 巖桂를 仙友, 海棠을 名友, 茶蘼(황매)를 韻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연꽃을 ‘정우’라고 한데서 그 의미를 취한 동시에 주렴계의 「애련설」을 생각하여 지은 것임을 밝혀 놓았다.

節友社〔先生本註 陶公三徑梅獨見遺 蓋不但離騷爲欠典也〕 선생의 본주에 “도공의 삼경에 매화만 오직 버림을 받았으니 대개 다만 이소의 흠이 되는 일일뿐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절우사’란 이름한 이유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 ‘절우’는 매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松·竹·梅를 歲寒孤節, 菊花를 傲霜孤節이라 부르는데 도연명의 정원에 송·국·죽만 있고 매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이 이소의 흠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렴계의 연과 도연명의 송·국·죽을 함께한 四友에 대화를 첨가시켰음을 밝혀놓은 것이다.

谷口門〔先生本註 谷口鄭子眞不屈其志 耕于巖石之間而名振京師 楊子雲法言之語〕 선생의 본주에 “곡구는 정자진이 그 뜻을 꺾지 않고 암석의 사이에서 밭갈이하여 이름이 서울에 진동하였다. 양자운의 법언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다.

곡구는 漢 나라 處士 鄭子眞이 숨어서 밭 갈고 살았던 곳이다. 따라서 ‘곡구문’이란 이름에는 퇴계가 정자진의 그 뜻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주를 단 것이고 금보 역시 이를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先生本註’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제목과 관련하여 퇴계가 직접 붙인 것이다. 이는 퇴계의 본뜻을 잃지 않으려는 금보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보는 「완락재」 시의 첫 번째 구절에 퇴계의 원주와 같은 내용의 주석을 달아 놓았다. 윗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主敬還須集義功〔主敬左齋 明義右齋 動靜循環之功有似於太極也〕  
주경은 왼쪽 재실이고 명의는 오른쪽 재실이다. 동정과 순환하는 공부에 태극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완락재」 시의 첫 구절이 바로 주자의 「명실당기」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놓은 것으로 위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다음은 「幽貞門」 시의 첫 구절에 대한 주석이다.

不待韓公假大龜〔韓昌黎復志賦 假大龜而視兆兮 求幽貞之所廬〕  
한유의 「復志賦」에 “큰 거북이 빌려 징조를 봄이여, 그윽하고 곧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구하네.”라고 되어 있다.

‘韓公假大龜’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유의 「復志賦」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 놓았다. 지금처럼 전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 날에는 모든 것을 암송을 통한 인간의 두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많은 독서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 글 역시 전고를 밝혀 놓지 않았다면 한유의 「복지부」를 읽은 사람만이 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금보는 주석을 달아놓음으로 인하여 스승의 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다음은 「東翠屏山」 시의 내용으로 동취병산의 이름다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疑是營丘筆下生〔營丘卽李成所居也 工畫山水因號李營丘〕 영구는 이성이 살던 곳이다. 산수를 잘 그려 인하여 이영구라고 불렀다.

동취병산이 그림과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營丘’를 인용하였는데 금보는 이 시를 읽고는 ‘영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이다.

다음은 「西翠屏山」 시의 네 번째 구절에 붙인 전고에 대한 주석이다.

一任浮雲萬古青〔晦菴詩浮雲一任閒舒卷 萬古青山只麼青〕 회암시에 “부운은 제멋대로 한가로이 퍼졌다 말았다하고 만고의 청산은 다만 푸르기만 하네”라고 하였다.

이 시는 주자의 「寄籀溪胡丈及劉恭父二首」라는 시 구절의 일부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수의 “儀型浮雲一任閒舒卷 萬古青山只麼青”를 취하여 한 구절로 만든 것임을 말하였다.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전고를 밝혀 놓음으로써 이 시가 주자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芙蓉峯」 시에서도 같은 주석을 달았다.

主人亦有烟霞癖〔主人卽趙上舍士敬也 烟霞癖唐高宗過田遊巖所居問曰何所樂耶 曰有泉石膏肓 烟霞癖疾〕 주인은 즉 상사 조사경이다. 연



하벽은 당 고종이 전유암이 사는 곳을 지나다가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천석고맹 연하고질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시의 제목에 “趙上舍士敬家在峯下(상사 조사경의 집이 봉우리 아래에 있다.)”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부용봉 시에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상舍 趙士敬임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烟霞癖’의 고사에 대하여 전고를 밝히고 풀이해 놓았다. 이상이 시의 전고를 풀이해 놓은 것이라면 아래의 두 조목은 시 구절에 대한 풀이이다.

「時習齋」 시의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주는 전고를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풀이라고 할 수 있다.

兩進明誠效數飛[明明善 誠誠身] ‘명’은 선을 밝히는 것이고 ‘성’은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금보의 「도산기고증」에는 이 첫구절이 ‘兩進明誠效數飛’로 되어 있어 『한국문집총간』 『퇴계집』의 ‘日事明誠類數飛’와는 다르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초본으로 보인다. 이 구절에서 明과 誠의 의미에 대하여 ‘명’은 선을 밝히는 것이고 ‘성’은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놓음으로써 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도산잡영」의 한 번역에 “날마다 명성 일삼기를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하니 거듭 생각하고 다시 실천하길 때때로 하네.(日事明誠類數飛 重思復踐趁時時)”라고 하였고 明誠에 대한 주석을 『중용』의 “明으로부터 誠으로 이르는 것을 聖이라 이른다.”라고 달아 놓았다. 금보가 달아 놓은 ‘명성’의 의미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주석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中藏蘭若下園亭[蘭若蕭灑之處] 난야는 쇠소한 곳이다.

「西翠屏山」 시의 ‘蘭若’에 대한 주석이다. ‘난야’는 고요한 곳이라는 뜻으로 ‘절’을 가리킨다. 산스크리트어의 아란야(aranya)에서 온 말인데 서취병산

안에 절이 있기 때문에 '난야가 절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렇게 주를 달아 글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은 5언 절구 26수에 대한 주석이다. 여기에는 총 14조의 주석이 달려 있다. 先生本註가 2조, 전고 11조, 난구 풀이 1조이다. 선생 본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전고, 난구 풀이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蒙泉」시의 네 짝 구절과 「西麓」시의 세 짝, 네 짝 구절이다.

尤當思果育〔先生本註 果育卽易辭蒙卦象 曰君子以果行育德之語也〕 선생의 본주에 “과육은 바로 주역의 사로 몽괘의 상에 ‘군자가 본받아서 행실을 과감하게 하고 덕을 기른다’라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다.

二仲豈無有 愧余非蔣卿〔先生本註 蔣卽蔣詡也 二仲卽羊仲裘仲二人 居蔣卿之隣 逐日相從 故及此〕 선생의 본주에 장은 장우이다. 이증은 양증과 구증 두 사람인데 장경의 이웃에 살며 날마다 서로 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퇴계 선생이 시를 지어 놓고 직접 주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몽천」시의 구절은 ‘蒙’자의 뜻을 주역에서 빌려 온 것임을 밝히고 ‘果育’이란 말 역시 蒙卦의 ‘果行育德’의 뜻임을 말하였다.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서록」시 역시 전고에 대하여 풀이해 줌으로써 시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계 선생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이미 羊仲·裘仲과 같은 현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경과 같은 덕을 지니지 못했다고 겸양하였다.

自在寧心惻〔劉子澄自號冽軒 詩云無勞劇心惻〕 유자징이 冽軒이라고 자호하였다. 시에 ‘수고로움이 극심하거나 마음의 슬픔이 없네’라고 하였다.

「冽井」시의 ‘石間井冽寒 自在寧心惻’에서 ‘心惻’에 대한 주석이다. 금

보의 주석에 보이는 시는 주자의 「墨莊五詠」에 나오는 것이다. 그 중 「열헌」을 읊은 시에 “窗開深井泉 窈窕千丈碧 何幸且淵澄 無勞遠心惻”라고 하였는데 이 시를 옆두에 두고 ‘心惻’이라는 시어를 썼음을 밝혀 놓았다.

意思如馨(如馨猶言寧馨 王衍美丰姿 山濤嗟歎曰何物老嫗生此寧馨兒 一云馨香也 言恁地也 ○王若虛曰寧猶言如此馨語助也) 如馨은 寧馨(이러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왕연은 풍채와 자태가 아름다웠다. 산도가 감탄하며 “어느 놈의 늙은이가 이러한 寧馨兒를 낳았을까?”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형은 향이니 恁地(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왕약허는 “영은 ‘이와 같다(如此)’고 말하는 것과 같고, 형은 어조사이다.”라고 하였다.

「庭草」시의 ‘如馨’에 대한 설명이다. 如馨과 관계된 말의 전거를 끌어와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馨을 ‘향기’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目擊道存 意思如馨’에 대하여 풀이하면 ‘눈에 부딪히자 도가 있으니 생각도 이와 같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濯濯風度(王恭有美貌 人云濯濯如春風之柳) 왕공에게 미모가 있어 사람들이 이르길 깨끗하기가 봄바람에 핀 버들 같다고 하였다.

「澗柳」시에 붙어있는 4언시의 두 번째 구절이다. 이 설명이 없다면 왜 ‘버드나무가 깨끗한 풍도’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탁탁풍도’가 버드나무와 관련이 있는 말임을 전고를 이끌어 밝혀 놓았다.

千載兩節翁(兩節 陶靖節 邵康節) 양절은 도정절과 소강절이다.

역시 「澗柳」에 나오는 구절이다. 진의 도연명은 문 앞에 다서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오류선생이라 자호하였으며, 송의 소요부는 “오동나무 위에 뜬달 흥증을 비출 때 버드나무 바람은 얼굴에 부네.(梧桐月向懷中照 楊柳風來面上吹)”라고 하자 明道가 “정말 호걸스런 풍류(眞風流人豪也)”라고 했다고 한다. 도연명은 시호가 ‘정절’이고 소요부는 호가 ‘강절’이기 때

문에 '양절'이라고 표현했음을 드러내었다.

다음의 「西麓」 시에 나오는 구절 역시 전고를 풀이한 것이다.

雲霞之交〔范泰與一高人爲物外遊 時人以爲雲霞之交〕 범태와 한 고인이 물외의 교유를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운하의 교유'라고 일컬었다.

'雲霞之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를 밝혀 '물외의 교유'라는 뜻을 명확하게 해 준 것이다. 이 주석이 없이 아래의 경우처럼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푸르른 서쪽 산기슭에	悄蒨西麓
초가집 한 채 지을 만하네.	堪結其茅
학문에 전심할 수 있으니	以藏以修
구름 안개 어우러졌네.	雲霞之交

이를 금보의 「도산기고증」의 주석을 이용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윽하고 깊은 서쪽 산기슭에	悄蒨西麓
초가집 한 채 지을 만하네.	堪結其茅
학문에 전심할 수 있으며	以藏以修
물외의 교유 할 수 있네.	雲霞之交

새로 지은 집에서 학문에도 전심하고 때로 벗과 세상사 모두 잊고 사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翠微」 시에 대한 두 구절 역시 시어의 출전을 밝힌 것이다.

九日攜壺酒〔杜牧之詩 九日攜壺上翠微〕 두목의 시에 9일에 술병을 들고 언덕에 올랐다고 하였다.

菊花空滿手〔古詩 九月九日菊花空滿手 笑無酒也〕 고시에 구월 구일에 국화는 부질없이 손에 가득한데 술이 없음을 웃노라.

「翠微」시의 앞 두 구인 “東隴上翠微 九日携壺酒”이 두목의 ‘九日攜壺上翠微’에서 나왔고 뒤 두 구절 “却勝陶淵明 菊花空滿手”은 도연명의 ‘九月九日菊花空滿手 笑無酒也’에서 왔음을 밝혀 놓았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어의 유래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 「寥朗」시 ‘仰眺俯瞰’가 『蘭亭考』의 ‘右將軍會稽內史王羲之’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 것이 있다.

仰眺俯瞰〔古詩 仰眺碧天際 俯瞰綠水濱 寥朗無涯觀 寓目理自陳〕  
고시에 우러러 푸른 하늘 끝을 바라보고 굽어 녹수의 물가를 바라본다. 비고 맑아 끝이 없이 보이는데 눈 닿는 곳마다 이치가 펼쳐지네.

다음은 「月艇」시의 세 번째 구절이다. 이 구절은 『퇴계집』에 ‘湖老烟波詠 坡仙桂棹秋’으로 되어 있는데 금보의 「도산기고중」에는 ‘九曲羊裘詠 黃岡桂棹秋’로 되어 있다. 인용한 시는 주자의 ‘劉子澄遠寄羊裘且有懷仁輔義之語戲成兩絕爲謝以發千里一笑’라는 시이다. 금보는 주자의 시에 나오는 ‘광노’에 대해서까지 누구인지 꼼꼼하게 밝혀 놓았다.

九曲羊裘詠〔晦菴在武夷 答劉靜春寄羊裘詩 誰遣羊裘與醉披 故人心事不相違 狂奴今夜知何處 月冷風淒未肯歸 狂奴嚴光之小字也 侯霸邀之 光瞋目不答 久之乃曰 懷仁寶義國家興 阿諛順從腰領折 霸以白帝 帝笑曰狂奴舊態尙存〕 회암이 무이에 있을 적에 유자징이 ‘양구’를 부쳐준 일에 답하는 시에 “누가 양구와 취피를 보냈는가 고인의 심사와 서로 어긋나지 않네 광노는 오늘 밤 어디에 있는지 달빛 시리고 바람 서늘한데 돌아오려 하지 않네.”라고 하였다. 광노는 엄과의 자이다. 후패가 맞이하니 엄광이 눈을 부릅뜨고 대답하지 않고 한참 있다 “인을 품고 의를 보배로 여기면 나라가 흥하고 아침하고 따르기만 하면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였다. 후패가 이 말로 황제(광무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웃으며 “광노의 옛 모습 아직도 남아 있네.”라고 하였다.

漆有世用 其割焉保 厥或免割 乃割之道 古縣但遺基 漆林官所植

見割有警言〔莊子漆以有用見割警言 莊子昨見櫟之免伐 今見鴈之見烹 木以不材全其天年 鴈以善鳴不保其身 將處材與不材之間 此警言也〕 장자에 칠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배임을 당하는 경을 보고 경계하는 말을 하였다. 장자는 어제 櫟나무가 배임을 면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기러기가 삶아지는 것을 보았다. 나무는 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천수를 온전히 하고 기러기는 잘 울기 때문에 그 몸을 보존하지 못했으니 장차 '材'와 '不材'의 사이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경언이다.

「漆園」시의 '警言'과 관련한 주이다. 퇴계선생의 '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경언을 남겼다.'라는 구절에서 왜 '경언'이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밝혀 놓은 것이다.

丙穴底貢〔淡水之源有丙穴 此穴之魚有至味 指銀唇〕 한수의 근원에 병혈이 있어 이 혈에서 나는 고기가 매우 맛이 있는데 은순어이다.

「魚梁」시에 부기된 4언시의 첫 번째 구절 '병혈'에 대하여 주이다. 금보는 '병혈'에 대하여 주를 달아 놓아 이곳이 어량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如黛如簪〔趙飛燕妹合德爲薄眉 號遠山黛 韓詩云 山如碧玉簪 天空浮脩眉〕 조비연의 동생 합덕(조침여)은 눈썹이 엷어 '원산대'라 불렀다. 한유의 시에 "산은 벽옥잡과 같은데 창공에 단장한 눈썹을 띄었구나."라고 되어 있다.

「遠岫」시에 부기된 4언시 의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주석이다. '如黛'는 조비연의 동생의 눈썹에서 그리고 '如簪'은 한유의 시에서 나온 것임을 제시하여 산의 모습이 그린 눈썹 혹은 비녀와 같다는 말에 모두 출처가 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四絶五言에는 3조의 주석이 달려 있다. 선생본주가 1조, 전고가 1조, 상황설명이 1조이다. 먼저 「汾川」시의 선생본주를 보기로 하자.

汾川非異水 回首想梧陰〔先生本註 汾川在西翠屏南李大成所居 自號碧梧〕 선생의 본주에 “분천은 서취병산 남쪽에 있는데 이대성이 사는 곳이다. (이대성은) ‘벽오’라고 자호하였다.

「汾川」시의 제목 옆에 “汾川在西翠屏南 實里名也 知事之胤大成所居 大成號碧梧”라고 되어 있다. 금보의 「도산기고증」과 퇴계의 기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금보는 이것을 본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퇴계 선생이 5언 4을 짓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며 ‘借景’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에 대한 주석이다.

借景〔史某構亭於他亭之傍 史亭無景而彼亭有致 山谷命之曰借景亭〕 사모가 다른 사람의 정자 옆에 정자를 지었는데 사씨의 정자는 볼만한 경관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정자에는 운치가 있었다. 그래서 황산곡이 이 정자의 이름을 ‘차경정’이라고 하였다.

‘차경’이란 말의 전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퇴계는 龔巖·汾川·賀淵·屏庵 등은 비록 天淵臺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있으나 각기 주인이 있으므로 山谷 黃庭堅의 ‘借景’으로 별도 처리하였다.

「汾川」시의 네 째 구절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秋來戀主深〔時李公去此在任 故稱之〕 이때에 이공이 이곳을 떠나 임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컬은 것이다.

이대성의 집이 있는 분천에서 이대성을 생각하는데 가을비가 내리자 이대성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다.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임금에 대한 생각이 깊은 것으로 될 수 있는데, 금보의 주석과 맞추어 해석해보면 여기에서의 ‘주’는 이대성임을 알 수 있다.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도산기고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의 고증은 주석의 의미와 가까운 것이다. 금보는 퇴계의 「도산기」에 퇴계의 본주와 자신이 전고에 대하여 확인하여 기록한 것, 그리고 난구 풀이 등을 기록해 놓았다.

이는 스승의 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퇴계에 대한 금보의 존모의 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정존재잠고증」 분석

「靜存齋箴」은 퇴계가 63세 때 李湛의 靜存齋에 잠을 써준 것이다. 이 답은 자가 仲久로 김굉필의 문인이었는데 퇴계를 사숙하여 많은 서신왕래가 있었다. 이 글은 모두 50구로 이루어졌는데 금보는 여기에 10조의 주석을 달아 놓았다. 비록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문이 들거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주를 달아 놓음으로써 스승의 글을 정밀하게 이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고를 풀이한 것이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皇降吾衷 本眞而靜(伊川好學論曰其本也眞而靜) 이천의 「호학론」에 “그 근본은 참되고 고요하다.”고 하였다.

云胡末渝 斲喪其性(末謂已生之後也) 말은 이미 생겨난 뒤를 이른다.

왜 근본이 참되고 정하다고 하였는지 그 근거가 이천의 「호학론」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이어 ‘말’에 대해 ‘이미 형성된 후’라고 의미를 밝혀 놓았다. 아마도 금보가 퇴계에게 공부할 적에 「정존재잠」에 대하여 같이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말단’이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 말단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주석을 단 것이다.

外物膠擾 日以心競 情熾欲蕩 百慮千歧(莊子膠擾言紛擾也) 장자에서 교요는 어지러움을 말한다.

顛冥不止 老漁堪悲 不求其本 曷能存之(莊子齊物論 其厭也如緘 以



言其老洫 註機心益熱 愈老愈深 故曰老洫 言人陷於物欲 終身不出者也) 장자 「제물론」에서 그 막힘이 봉한 것 같으니 이는 노후하여 고갈된 것을 말함이다. 주에 기심이 더욱 뜨거워져 늙으면 늙을수록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혁이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몰욕에 빠져 종신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靡有將迎 恆存戒懼(莊子不將不迎 將送也 卽正心章留滯也 迎延卽期待也) 장자에 ‘不將不迎’이라 하였는데 ‘장’은 보냄이니 곧 ‘정심장’의 ‘유체’이다. ‘영’은 이끌어들임이니 곧 기대함이다.

이 세 조목은 장자에서 그 어휘를 빌려 왔음을 밝혀 놓았다. ‘膠擾’·‘老洫’·‘將迎’의 의미에 대해 『장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由定而明 曲當時措(定指靜之體 明指動之用)(曲當於時措也) ‘定’은 ‘정의 체’를 가리키고 ‘明’은 ‘동의 용’을 가리킨다. 때에 해야 할 것에 꼭 진하고 마땅하다.

各止其止 動亦靜爾 非若老佛 靜耽動鄙(惟靜是耽 而惟動是鄙也) 오직 ‘靜’만하면 탐닉하는 것이 되고 오직 ‘動’만 하면 비루하게 된다.

이 두 구절은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러한 주석은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孔云定靜 孟論夜氣 周程益闡 楊羅深味(靜字 楊龜山羅豫章相傳旨訣) 정자는 양귀산과 나예장이 서로 지결로 전하였다.

‘양·나가 깊이 음미하였다’는 말의 뜻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양귀산은 楊時로 정자의 高弟이며 나예장은 羅從彦으로 양시의 고제이다. 모두 주자의 학통 연원이라 할 수 있다. 금보는 양귀산과 나예장에 대하여 이들이 ‘정’자를 전수해주었음을 말하여 퇴계가 「정존재잡」에서 언급한 이유를

밝혀 놓았다.

直諒吾友 力於古學 有契于此 揭之齋額 執此明彼 匪遺其一(此指靜彼指動 上句動亦靜重在此耳) ‘차’는 ‘정’을 가리키고 ‘피’는 ‘동’을 가리킨다. 위구의 ‘동역정’은 무게가 정에 있다.

이 부분은 정존재의 주인이 정을 가지고 동을 밝히어 하나도 남김이 없었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피’와 ‘차’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금보는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차’는 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는 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를 달아 놓았다. 또한 앞의 구절인 “각각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춘다면 동도 또한 정이라네(各止其止 動亦靜爾)”의 ‘동역정’ 역시 ‘정’에 무게 중심이 두어졌음을 말하여 ‘정존재’의 ‘정’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존재잡고증」은 퇴계의 「정존재잡」에 대하여 주석을 한 것으로 퇴계 「정존재잡」에 대한 주석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보가 이와 같이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단 이유는 스승의 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이는 퇴계와 함께 『주자서』를 공부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석학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던 조선의 학풍에서 이러한 꼼꼼하고 치밀한 공부 방법은 학문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사변적인 내용에도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이러한 공부방법이 있었기에 퇴계의 학맥은 왕성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

## 5. 결론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 자체가 갖는 의미는 소략하기는 하지만 「도산기」와 「정존재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글이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전을 연구하며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데 치중해 왔

다. 문집에 대한 주석 작업을 소홀히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공구서나 문헌이 풍부하지 못했던 옛날 우리 선현들은 사승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견해를 후학에게 전수하였다. 퇴계 문하의 학문 방법은 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퇴계에서 시작하여 계속 퇴계 일문의 공부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스승의 글에 주석을 단 자료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통상 자신의 시문에서 일반 독자들이 잘 알 수 없는 전고나 사실을 쓸 때,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승의 글에 대하여 주석을 단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퇴계가 퇴계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퇴계의 학문이 퇴계 사후에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찬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참고증」은 퇴계학문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금보의 퇴계에 대한 존모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 문인 신취는 「原學」에서 “才는 반드시 학문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학문은 반드시 스승을 말미암아 밝아지니, 학문의 근본은 스승을 존경하는 데 달려 있다.(才必由學而成 學必由師而明 學之本 在於尊師)”고 하였다. 퇴계 문하의 학문적 번성과 관련하여 새겨볼 말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금보, 『매헌선생문집』, 『退溪學資料叢書』4,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法仁文化社, 1994.
- 이황, 『퇴계집』, 『한국문집총간』29, 민족문화추진회, 1989.
- 이황, 『도산기』, 국립중앙도서관본.
- 이황, 『(국역)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1966.
- 이황, 『退溪全書』, 退溪學研究院, 1989.
- 안병걸, 『매헌선생문집해제』, 『퇴계학자료총서4』,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 이가원, 『도산잡영과 산수지락』, 『퇴계학보』46, 퇴계학연구원, 1985.

## Abstract

## The Contemplation about the way of Studying of Thoike (focused on - Dosankigozeung and Jeongjonjaejamgozeung)

Lee, Goon-Seon

In Mid-Choisun Period, there were many foremost scholars gathered to study under Thoike. It's not a usual situation that one scholar influences these many students. In addition, this Thoike doctrine has kept developing and leaving abundant achievements in academic history for the first time. Then, what is the motive power that Thoike's doctrine has maintained? We think that Dosankigozeung(陶山記考證) and Jeongjonjaejamgozeung(靜存齋箴考證) of Maeheon(梅軒) Kumbo(琴輔) can be the key to solve this question. Dosankigozeung and Jeongjonjaejamgozeung is students' annotated works to his teacher's work. We have been trying to observe and analyze to find the meanings of Thoike's doctrine and his work. It is true that we, somewhat, ignored about annotated works. To know Thoike's doctrine, it is based on the completion of understanding of ways of the doctrine. This system had started from Thoike, so it became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way of studying. As a result, students' annotated works and documents have been formed in this manner. Of course, often, scholars annotate to their own works,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that students annotated to their teacher's work, such as Dosankigozeung and Jeongjonjaejamgozeung. This is one of the ways, which was generated under Thoike's teaching, which makes to understand Thoike's work perfect. We believe that this thorough annotated work is the motive power that lets Thoike's doctrine has developed and left historical achievements. After that, these ways of studying in this elaborate annotation works have become the tradition, so that is the reason how this way of studying has been developing continuously. Dosankigozeung and Jeongjonjaejamgozeung are the perfect documents that have shown the Thoike's doctrine. At the same time, this can be the document that makes sure of the affection between Thoike and his following students.

**Key Word**

Dosankigozeung, Jeongjonjaejamgozeung, the Thoike's doctrine, scholar influences, Maeheon Kumbo, a legitimate way of studying, historical achievements, Thoike and his following students